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發行兼 崔 主 鎬
編輯人 崔 瑞 泳
印刷人 崔 瑞 泳

發 行 所
서울대학교 同窓會
郵便番號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 18-2
電 話 : 702-2233~5, 717-8536~7.
F A X : 703-0755.

銀行지 로 番號 : 7500875
對 替 口 座 : 010017-31-0621565



19萬 友情的 깃발을 날리자

貴賓路邊의 동창회관

再開發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設計로 建築美가 한층 돋보인다. 오는 93년말 地下鉄 5호선이 完工되면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冠岳春秋

待望의 90年代의 둘째해도 이제 저물어간다. 冬事多難했던 한해였고 또 유엔기일을 잊었던 한해이기도 했다. 同窓會도 수많은 新入會員이 가입하여 量의 팽창하였고 또 同窓會는 榮光스러운 활동을 하여 母校를 빛내주기도 하였다. 今年에는 새로이 자랑스러운 서울大學의 選拔을 하여 동창들의 士氣를 돋아주기도 하였다.

동창회가 麻浦에 건립한 同窓會館에 입주한지도 어언 4년이 되었다. 그동안 별별이 흘러져 있던 單大同窓會事務室이 同窓會館에 할류함으로써 有機的인 활동을 하게 되어 동창회활동에 중요한 轉機가 되었다. 同窓會館의 건립은 總同窓會의 10周年記念事業으로 發議된 것이었고 歷代會長과 任員, 會員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0周年 가까이 되어야 完工된 것이었다. 특히 崔主鎬 同窓會장이 建立基金 15의 중 10의원을 회사하였기에 완공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부족분은 任員들과 會員들의 特志에 의 존하였으나 貸貸保證金으로 충 당된 것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竣工當時의 冠岳春秋는 동창회의 麻浦時代를 맞아 '우리 同門들이: 우리나라 歷史創造의 구 실을 다함으로써 榮光의 會館'으로 길이 우리 가슴에 남을 민족發展에 기여할 터전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麻浦 동창 회관이 이 바램에 완전히 報答 하였는가를 斷定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 同窓會館竣工 이후 同窓會활동은 常任副會長의 상주, 職員의 忠誠, 業務空間의 확충, 컴퓨터施設의 도입등 으로 활기를 찾게 되었다. 그 동안 同窓會名簿를 새로이 발간하였고 同窓會報의 부스를 확장하였고, 親睦事業을 돈독히 해왔다. 과거의 總同窓會發足時와 비교하면 天壤之差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時價 1百億의상을 呼價할 同窓會館의 資産價値에 상응하는 수 익이 있지는 않은가. 그 동안의 不動産價格의 急騰으로 帳簿價格은 올랐으나 收益事業面에 있어서는 기대한 만큼의 성장이 있을것 같지 않다. 同窓會館의 會議室이 주로 同窓會員들의 慶祝式場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처음 생겼던 대로 동창회 會議場이나 동창의 學術發表場등으로는 잘 이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것은 麻浦會館에의 交通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地下鐵工事가 완공되면 交通便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 劃期的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앞서 인용한「동창회의 麻浦時代를 맞아」라는 冠岳春秋에서는「이會館을 효시로 해서 장래 제2, 제3의 會館이 건립될 것이라고 내다 보면서」라고 글맺고 있다. 그러나 이 期待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母校內에 들어선 여러 寄贈建物을 볼 때 제2, 제3의 會館建物の 建立이 어렵지 않은 양을 것 같다. 大學發展基金이 가지고 있는 敷地나 全國에 散在해 있는 母校舊地위에 會館을 건립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收益財産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지는 하다.

財産價値나 收益性을 생각하지 않고 利用價値만으로 볼 때 동창회관의 건립이나 利用方途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各地方支部마다 獨自會館을 가지고 會議場所와 獨自健康施設들을 부설한다면 同窓會의 親睦도 보다 돈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2000年代의 同窓會를 생각할 때, 同窓會館의 地方擴張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努力이 요망되며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同窓會는 그동안 會館建立에 힘써왔고 이후 管理해오던 常任副會長과 事務處長이 물러나고 새로히 陣容을 갖추어 새 출발하였기에 麻浦會館時代의 제2대를 맞은 셈이다. 새로운 常任副會長과 事務處長의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麻浦同窓會 발전의 새契機가 되기를 바란다.

同窓會員들도 동창회 발족 30周年인 1999년에는 麻浦會館이 영광의 회관이 되도록 協力하여 할 것이며 새 記念物의 건립을 이룩하여야 하겠다.

登山大會 참가합찬
 李禮植 동문 10萬원
 지단 10월20일 개최된
 同門親睦登山大會는 각계
 동문들의 뜨거운 협찬으로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대회가 끝난 지단 11월
 19일 李禮植(49) 藥大
 卒·前藥大同窓會長 동문
 이 10만원씩 협찬했다

◇ 師大동창회가 敎育學科 동문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鄭元植총리 취임 축하연 광경.

金燦東은家

『우리 가족들이 전
부 모이면 같은 서울
대동문동의 되지요』
라며 빙긋이 웃는申
鉉德(1958年 法大卒)
그의 딸대로申동진일
가에는 母校 동문일이 많
다.

우선 부인 金在姬(동
문이 申동진과 나란히
法大를 졸업한 동기)이
다. 그리고 두 딸 倫才
내파원(1969年 醫大
를 졸업했다. 한진 鉉
順호의 夫 李柱藝(동
문) (한구체대 교수) 이
法大(60年卒) 鉉正秀
문의 妻 金榮珠(동문)
美大(70年卒) 출신이기
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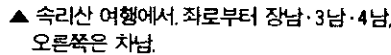
申동진도 현재 경희
대학교 정문대학 교
수로 재직중이며, 부인
金동진은 경기대와 인

珍才(영) 母校 美大 공
 영디자인학과 3학년과
 동영화과 2학년의 각
 각 재학생이다 또한 申
 鉉正(동)의 5남매가 모
 두 母校 동문이고 兄
 申鉉守(동)은 대우의 원장
 과 申鉉哲(동) (在美)
 이 58년에 醫大를 나
 라히 졸업했다. 妹申鉉
 順(동)은 (前) 성신여대 상
 사)은 60년 音大를,
 弟 申鉉正(동)은 신원정
 내과(원장)인 63년 醫大
 를 졸업했다. 한편 鉉
 順(동)의 夫 李柱勳(동)
 부) (한글체대 교수) 이
 法大 (60년卒) 鉉正(동)
 의 妻 金榮珠(동)이
 美大 (70년卒) 출신이기
 도 하다.

申忠(동)은 현재 경희
 대학교 정보대학원 교
 수로 재직중이며, 부인
 金榮珠(동)은 경기대와 인

夫人・子弟等 온 가족이 同門

다른 **골동품**은 앞으로
각자가 **직접**하는 분야
에서 **말은**바 **직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서 무언가 사회에 기
여할 수 있는 인간으
로 자리잡았으면 한다

성실하며 리더십을
써 스스로 알아서 공
부하는 분위기를 만들
어 줬다" 김봉환(55)은

다시 한번의 기회를 택
해 모교 대학원에서
行政學 박사학위를 취
득하고 美士坦波三大를
거처 현재는 한국방송
통신대 교수로 후학을
을 교육하고 있다. 본
인 스스로 말하기를
평화와 보편적 체현한
타라 현재 가톨릭
대학에 재직하고 학
생들의 대한 이해와 애
착 또한 크다.

공적 재직시 해교인
무를 가졌을 때 한 해 하
면서 자고하는 이로서
의 전향은 오히려 부끄
럼이 그다지 많을 것
같은 것을 느낀다. 그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부인 박정희를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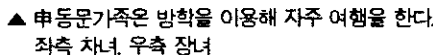
이
同門

兄弟 포함하여直系만 9명

하절문대에 장사로
출장하고 있다.

터"라는 부류간의 대
화를 통해 가정의 화목
을 통해 두렵게 하고
있다고 회고하는申·

행이 많고 안락가운
마음이 넓다. 이 중
코를 아끼고 조화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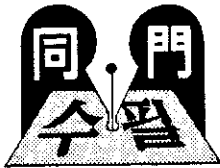
있기도 하다.
 자신들의 法大 재학
 金宗일은 法大 동기생
 재능을 살리지 못한 사

[illegible][illegible]

아빠! 저 사람들은 왜 싸움만 해?

매일매일을 분주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TV앞에 앉아 그들도 좀 한가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때라면 아마도 저녁 9시 뉴스시간이 아닌가 한다. 9시 저녁뉴스라도 보아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싶어 가는 하던 나는 이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과일이라도 먹으며 대화를 하고 있다.

일마전 국정감사 기간 중 9시 뉴스를 보고 있던 중 하도 3학년 딸애가 “아빠! 저사립들은 왜 싸웁니까?”하고 나에게 설명을 구하였다. 화면에는 모 국회의원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



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논리정연하게 토의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은 시청자들의 흥미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은 가급적 땀 범하지 않는 것을 보여 주려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마스크의 생리를 잘

먼저 구출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한강을 더이상 오염시키지 못하게 국회의원을 먼저 구출해야 된다는 블랙유머도 있다고 들었다.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지만 못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만일 우리 딸애가 커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세계에서 매일 싸움질만 하면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세사람만 순서대로 말하라면 프로권투 선수, 프로레슬링 선수, 그 다음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는 우문현답이 유행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매일 싸움만 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보이는 데에는 매스컴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

葛 政 雄

〈72년 商大卒·詩人·大林産業 理事〉

알고 있는 일부 의원들은 T.V화면에 비춰짐으로써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국회에서 열성적이고 열렬하게 국정에 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설 명해 주었다. 팔애는 그 래도 좀 이해가 안된다 는 표정이었다.

며칠전에 발간된 영어 유머를 모아 놓은 책자에는 국회의원들의 반 이상은 사기꾼이라는 기사를 썼더니 정정 기사를 내라는 혐의가 워낙 심하여 결국 정정 기사를 냈는데 국회의원 반 이상은 사기꾼이 아니더라고 했다는 내용을 읽었다. 또한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 국회의원과 목사가 한강에 빠졌는데 누구를

고 생각한다. 기를 올리는 모습, 먹살잡이 하는 모습, 마이크를 서로 뺏는 모습, 의사봉을 뺏는 모습, 샅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치르는 모습, 상소리하는 모습 등을 강조해서 보여 준다면 국민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는 국회의원은 매일 싸움만 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
에게 별로 좋은 이미지
를 주지 못하고 있는 차
기 국회의원이 되려고 벌
써부터 사전운동을 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고 있
다는 소식을 들으며 차
기 국회의원들은 좀 싸
움에 소질이 없는 사람
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
램이다.

었다 나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무심
코 텔레비전을 보다가 딸
애의 질문을 받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T.V화면에 비친 국회의
회의진행 모습이 모두 싸
우고 소리지르는 장면만
은 아니었지만, 원래 사
람들 기억에 강하게 영
상지워지는 것은 평범한
장면보다는 좀 강렬한 인
상을 주는 장면인 까닭
에 딸애에게는 국회의원
은 매일 싸움만 하는 사
람으로 비춰졌는가 보다
나는 딸애에게 '국회'
라는 영어단어 Parliam-
ent가 원래 '말을 한다'
는 뜻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토의하
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본

名譽教授
칼립



허웅
〈전 모교 인문대 교수
한글학회 이사장〉

[illegible]

도 이 힘이 미쳐 다
른 파의 교수가 추천
하는 사람은 무조건 반
대했다. 그때에 나를 추
천한 쪽이 수가 모자
라서 전임강사로 격하
된 것이다.

그럼에 교수출신의 어떤 장관 한 부의 고수능능인 학의 옹호에 무너진다. 이 고수 학계 재인정 제도가 마련되고 교수직이 이란 것이 권력의 대 한신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교수 노릇한 것이 부끄럽기만 하다.

총재이고 학장이고 모든

다. A 사 태 B 사 태 C
사 태로 실험한 것이 내
수 가 된 위 해 교 수
들 을 일 선 으 로 문 의 했
다. A 사 태 B 사 태 C
사 태로 실험한 것이 내

1.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글서체'의 변화는, '한글서체'의 '한글서체'를 '한글서체'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illegible]

일까요?
 의미는? **정확한** 거룩
 의수? **오해**인지? **불**
 고..... 그 **정신**
 그루 **정신**은 **한**
 래서 내 **대학** **과**
 시절에 **전공**한 **그**
 후기의 **불교** **공부**
 편은 **한**. **은** **한**
 그 **영**의 **사** **한**
 이 **한** **한** **한**
한

대학운영 대학 자율에 맡겨야
관권개입 금지 학문은 정체

서 구령은 받들어
문을 정제하고, 정을
무산했다. 이것이 몇
동안 계속되었는지
글도 그 끝간 데를

두 번째로 인문학가 되고 화생의 데모가 실패지니까 데모를 잘 할수 있는 화생의 사생이 화생이냐 인문학가냐 화생이냐 인문학가냐

리면 꼭 전전(轉轉)의 연도하
 듯이 교수들은 말을 잘 자
 리고 배워진다.
 내가 장담해보자 할 무
 려는 바로 이리만이었
 다. 그래서 나는 퇴직
 인사에서 이런 자리
 에서는 시월설날하다기
 말을 하는 것이 어울
 리는 표현이 될 것 같
 은데, 나는 설날만 마
 음은 전회 없고, 시월

* * *
 내가 처음 장로회
 에 갔을 무렵은 그 교회를
 수가 셋이었으며 합할
 은 곧 원정이라 가
 고, 이 한 분의
 국어로 가려 대
 한지 장로회 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10】



年會費내주신문

〈10월 10일 ~ 11월 14일까지〉

人名 밑 원내 숫자는
卒業年度

理事

◇工科大学

- ▲金鳳完 69 BW부이사
- ▲金三坤 69 한국전력기
- ▲金鮮東 69 서울전우부
- ▲金仁駿 69 풍곡정우동
- ▲金鍾珠 68 무디코리아
- ▲朴敬燮 67 호신중공업
- ▲朴德七 67 화성프랜트
- ▲朴信文 64 신성인더스
- ▲白德鉉 67 포항제철부
- ▲孫昌根 63 신진산업대
- ▲辛昌湜 67 포항제철소
- ▲申鉉周 67 (주)리키산부
- ▲沈海鎮 67 태일도지대
- ▲安洪柱 67 동산판공기
- ▲萬福均 67 삼일물수고
- ▲俞英根 67 (주)영문부사
- ▲李忠秀 68 정진(주)사장
- ▲張連鎮 69 아남동산대
- ▲張仁甲 69 아남동산대
- ▲車敬模 62 동일레나운
- ▲秋收旭 67 삼우기계대
- ▲咸景浩 69 배심원가계
- ▲洪碩義 63 (주)일성

◇文理科大学

- ▲鄭英植 67 한빛기술교
- ▲韓相源 69 한국수출회
- ▲金桂洙 62 기원원
- ▲金雲泰 68 서울대영어
- ▲李昌洙 64 심인건설사
- ▲李漢彬 64 (주)부총리
- ▲河明熙 64 연남동신전
- ▲周明熙 64 주지교장

◇美術大学

◇法科大学

- ▲姜錫祥 69 부흥인사
- ▲康祐赫 62 국회의원
- ▲金容元 64 대우건설연
- ▲金容俊 69 대법관
- ▲金贊鎮 63 변호사
- ▲金平祐 67 변호사
- ▲孫鍾興 64 무역반합회
- ▲廉東福 69 한신호텔
- ▲尹錫重 64 (주)대인성
- ▲李錫榮 68 한국레저회
- ▲李相培 62 청와대비서

◇商科大学

- ▲金完深 62 국제종합금
- ▲金元錫 62 대한어협사
- ▲金周南 64 해외개발공
- ▲文孔訓 62 무역협회사
- ▲朴允錫 62 안성유리공
- ▲朴宗基 68 한미상사
- ▲成夏鎔 63 삼희기획사

◇師範大学

- ▲金湜中 69 나주여상교
- ▲金永奉 69 수유여중교
- ▲金永植 67 대한교원평
- ▲金榮義 63 무학여고교

◇農科大学

- ▲金祥燮 69 공익국
- ▲申東完 64 충남대교수
- ▲安致榮 67 (주)리키건설
- ▲安致榮 67 (주)리키건설

會費납부에 뜨거운精誠을...

歲暮가 가까와 옵니다. 동창회의 모든 사업도 이달이면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직 年會費를 내시지 못한 同門들께서는 이달 안으로 내주셔서 同窓會 활성화에 寄與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費 내역-

- 一般會員 1만원
- 理事 5만원
- 常任理事 10~20만원
- 監事 30만원
- 副會長 50만원
- 會長 100만원

一般會員

- ▲林漢鍾 67 고려대의대
- ▲申世吉 61 삼성물산
- ▲吳華熙 63 코오롱제약
- ▲李起俊 69 원기부여대
- ▲李炳宣 67 보림은행장
- ▲李鍾凡 69 두산유업사
- ▲李華泰 68 아세아부자
- ▲金成河 69 김치과
- ▲金吉洙 69 김진주치과
- ▲朴時雨 69 박시우치과
- ▲成寧煥 69 성영한치과
- ▲申榮均 69 명보치과
- ▲崔元榮 69 시사저널사
- ▲黃性均 69 국회의원
- ▲宋向憲 69 철도전원대
- ▲金元寶 67 평안약국

◇看護學科

◇環境大學院

- ▲權慶九 69 대우엔지니어링
- ▲梁慶錫 69 삼지대학장
- ▲金利煥 69 최성원광개

◇人文大學

- ▲金榮義 63 무학여고교
- ▲金永植 67 대한교원평
- ▲金永奉 69 수유여중교
- ▲金湜中 69 나주여상교
- ▲金榮義 63 무학여고교
- ▲金永植 67 대한교원평
- ▲金永奉 69 수유여중교
- ▲金湜中 69 나주여상교

◇自然大學

◇社會大學

- ▲洪厚康 69 중앙여고교
- ▲李圭煥 69 성신여고
- ▲張正訓 69 한국안선부
- ▲李柱源 69 의정부병원
- ▲高行日 69 백병원
- ▲金煥熙 69 김의과
- ▲金榮經 69 배심원가계
- ▲金鍾和 69 신종화이브
- ▲金周完 69 서울대병원
- ▲金周南 64 해외개발공
- ▲文孔訓 62 무역협회사
- ▲朴允錫 62 안성유리공
- ▲朴宗基 68 한미상사
- ▲成夏鎔 63 삼희기획사

◇保健大學院

◇司法大學院

- ▲洪厚康 69 중앙여고교
- ▲李圭煥 69 성신여고
- ▲張正訓 69 한국안선부
- ▲李柱源 69 의정부병원
- ▲高行日 69 백병원
- ▲金煥熙 69 김의과
- ▲金榮經 69 배심원가계
- ▲金鍾和 69 신종화이브
- ▲金周完 69 서울대병원
- ▲金周南 64 해외개발공
- ▲文孔訓 62 무역협회사
- ▲朴允錫 62 안성유리공
- ▲朴宗基 68 한미상사
- ▲成夏鎔 63 삼희기획사

◇新聞大學院

- ▲金榮義 63 무학여고교
- ▲金永植 67 대한교원평
- ▲金永奉 69 수유여중교
- ▲金湜中 69 나주여상교
- ▲金榮義 63 무학여고교
- ▲金永植 67 대한교원평
- ▲金永奉 69 수유여중교
- ▲金湜中 69 나주여상교

◇行政大學院

- ▲金榮義 63 무학여고교
- ▲金永植 67 대한교원평
- ▲金永奉 69 수유여중교
- ▲金湜中 69 나주여상교
- ▲金榮義 63 무학여고교
- ▲金永植 67 대한교원평
- ▲金永奉 69 수유여중교
- ▲金湜中 69 나주여상교

빠짐없이 納付를 바랍니다

[illegible][illegible]

校歌・同窓會歌 테이프를 보내 드립니다

[illegible][illegible][illegible]

職場支部

●중앙맹주... 18만원
 ●경병... 3만원
 ●농수산물 유통공사... 15만원
 ●영지실업전문대학... 24만원
 ●추천교육대학... 24만원
 ●삼부토건... 8만원

※지면 관계상 醫大 이후는 다음호에 게재되오니 양지하 주시기 바랍니다.

中年의 건강관리

——徐 正 燾 (67년 医大卒·母校교수)



中年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이야기하자면
 우선 中年의 정의를 확
 실히 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우대받던 과거
 에는 우리나라에서도
 20대를 약년(弱年) 또
 는 청년(少年), 30대를
 장년(壯年), 40대를 초
 로(初老), 60대를 가로
 (耄老)라 칭하였다고 하
 나 지금은 청년중년의
 연장되고 전각상태가 호
 전됨에 따라 20대를 청
 년(青年), 30·40대를 청
 장년(壯年), 40·50대를
 중년(中年), 60대이후를
 노년(老年)이라고 호칭

| | | | | | | | | | | | | | | |
|---|----|-----|----|----|----|----|---|----|----|---|---|---|---|---|
| 여 | 이 | 당 | 것 | 대 | 기 | 장 | 차 | 이 | | 年 | 에 | 이 | 물 | 하 |
| 의 | 40 | 할 | 으로 | 에 | 시 | 기의 | 최 | 그 | | 年 | 年 | 이 | 만 | 는 |
| 공 | 이 | 것 | 보 | | 작 | 의 | 소 | 리나 | 생 | 이 | 에 | 것 | 간 | 것 |
| 정 | 년 | 이다. | 는 | | 하게 | 가능 | 퇴 | 니 | 애 | 호 | 끼 | 가 | 진 | 에 |
| 눈 | 넘 | 불 | 것이 | 시 | 되 | 이 | 고 | 40 | 적 | 청 | 지 | 인 | 사 | 대 |
| 에 | 론 | 타 | 작 | 40 | 저 | 체 | | 은 | 들 | 않 | 상 | 한 | 하 | |
| 피 | 고 | 나 | | 되는 | | 하도 | 내 | 각 | 40 | 老 | 고 | 中 | 여 | 도 |
| 크 | 하 | | | | | | 각 | | | | | | | |

健康 교실

화가 진화한 것이라
고만 생각할 뿐 아니라
생체적인 변화도 있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
이다.

40대를 앞둔다면 친구의
의 말을처럼 50의 지
명(知命)이라고 60의
이순(耳順)할 수 있는
기쁨의 마련을 수 있게
을조한다. 아무튼 40이
되어면 오차피 죽어야
시작되고 만 것이다

현사회의 동향은 65세이상
로 노년층인 부류하
를 40세에서 65세까지
를 중노년층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우선 신체적외로 보면
특히 후반기에 있어
40대 남자의 사망률이
세계적으로는 높다고 보
는가? 일본은 전노인이지만

건강문제에 대하는 결
 허하게 대하기 시작하
 였다. 30대의 강
 의인한 40대 이후에 강
 기대하는 것은 어리울
 뻔한 일이다. 30대까지
 신체를 관리함에 있어
 서의 잘못된 40대부
 터는 서서히 그 영향
 을 나타내기 시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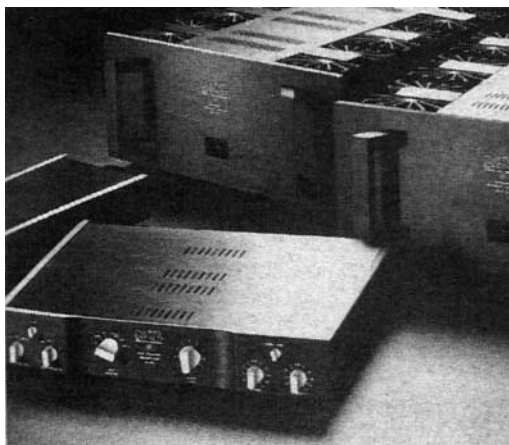
体力유지
규칙

때문이다. 따라서 40대에 들어서면 우선 자신의 건강상태를 상세하게 한번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거대한 진찰이니 혈압, 중추신경이나 라간, 위장, 심장, 폐, 신장 등 주요장기의 기능을 파악하고 각종 성인병의 발생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자료에 따

오디오의 常識

李裕健 (65년工大卒)

〈曉新企業 대표, 韓國오디오 愛護家會 회장〉



오디오가 嗜好삼골이
긴 해도 들어서 남
할수 있는 일을 그
면 그러한 장차에 애

처지기 때문에 훌륭한
스피커를 탄생시키기 위
한 제조 메이커의 입
다. 그렇기 때문에 아
래에서 배우려는 난
題가 산적해 있다고 한

취미를 가질수는 없다. 기
 술적으로 보아 스피커
 만큼 어려운 장치도 없
 다고 한다. 훌륭한 스
 피커는 물리적으로 만
 아니고 음악예술의 투
 양에서 배양되고 숙성
 된 것이요, 또 문예이



体力유지하고成人病조심

규칙적인運動、小食이 좋아

라 향우 건국공리의 발
 원을 결하여 세우나
 가아 한다.

中年の 건상판리는
 체력유지와 각종 성인인
 병에 대한 대책이라든
 두가지 측면으로 일차
 할 수 있다. 체력유지
 를 위하여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인데
 때도 자신의 건강상태
 로보아 적절한 정도의

[illegible]

하고 成人病
적인 運動、
운동은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운동도
을 별로 하지 않던 사
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
시작하거나 마음의 완
서서 전에 하던 운동
보다 더 강한 운동을
시작할 때 발생할 여
러가지 부작용에 대하
여 미리 대비할 필요
가 있다.

조심말라

식기는 것이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절제하여 이 있는 음식은 없게 철저하게 치료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으며 동맥경화의 예방을 위하여서도 불포화지방산을 치료하여야 하며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억제하고 단백질을 줄여야 하고 과체중에 의한 고지혈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食禁絶. 그리고 골고루
 먹으면서 小食을 하여
 야 한다는 先人들의 예
 습이 동맹경의 예와
 을 위하여도 중요하
 며 酒不過三盞의 권
 을 받아들이 술을 전
 제할 필요가 있다. 가
 종 압에 대비하기 위
 하여는 上記한 건장한
 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신체의 이상을 느낄

期診斷을 위하여 노력한다.
 하오나, 조선적인 전통을 의
 하오나, 물론 修養을 의
 계승하는 것 외에도 신학
 들길이 없었지만, 신학
 적인 것과 관련도 없다.
 도움의 될 것이다. 그
 장한 유체에서, 전
 조선'이란 말도
 지 않겠다.
 우리 나라의 모든
 年, 특히 국가사회를
 위하여 크게 일할
 여야 할 서울대학교
 中年同門의 건국에
 다.

메이커에 炫惑되지 말고

직접 들어보고 選擇해야

직까지도 자기애, 대하
明快한 精神을 發見
하고 人生觀에서 變
고 있는 人의 實情을 露
바친 기술인의 眞實
피크 이러한 眞面目서, 스
피크 기술인 社會의 實
이라고도 한다.

스피커의 구조적 특
징도 기술의 어려움과
같은데 그 종류도 다
종다양하다. 유니트형
으로 보아 1. 單體 單
獨형, 2. 複體 複
合형, 3. 複體 複
合型, 4. 複體 複
合型, 5. 複體 複
合型, 6. 複體 複
合型, 7. 複體 複
合型, 8. 複體 複
合型, 9. 複體 複
合型, 10. 複體 複
合型, 11. 複體 複
合型, 12. 複體 複
合型, 13. 複體 複
合型, 14. 複體 複
合型, 15. 複體 複
合型, 16. 複體 複
合型, 17. 複體 複
合型, 18. 複體 複
合型, 19. 複體 複
合型, 20. 複體 複
合型, 21. 複體 複
合型, 22. 複體 複
合型, 23. 複體 複
合型, 24. 複體 複
合型, 25. 複體 複
合型, 26. 複體 複
合型, 27. 複體 複
合型, 28. 複體 複
合型, 29. 複體 複
合型, 30. 複體 複
合型, 31. 複體 複
合型, 32. 複體 複
合型, 33. 複體 複
合型, 34. 複體 複
合型, 35. 複體 複
合型, 36. 複體 複
合型, 37. 複體 複
合型, 38. 複體 複
合型, 39. 複體 複
合型, 40. 複體 複
合型, 41. 複體 複
合型, 42. 複體 複
合型, 43. 複體 複
合型, 44. 複體 複
合型, 45. 複體 複
合型, 46. 複體 複
合型, 47. 複體 複
合型, 48. 複體 複
合型, 49. 複體 複
合型, 50. 複體 複
合型, 51. 複體 複
合型, 52. 複體 複
合型, 53. 複體 複
合型, 54. 複體 複
合型, 55. 複體 複
合型, 56. 複體 複
合型, 57. 複體 複
合型, 58. 複體 複
合型, 59. 複體 複
合型, 60. 複體 複
合型, 61. 複體 複
合型, 62. 複體 複
合型, 63. 複體 複
合型, 64. 複體 複
合型, 65. 複體 複
合型, 66. 複體 複
合型, 67. 複體 複
合型, 68. 複體 複
合型, 69. 複體 複
合型, 70. 複體 複
合型, 71. 複體 複
合型, 72. 複體 複
合型, 73. 複體 複
合型, 74. 複體 複
合型, 75. 複體 複
合型, 76. 複體 複
合型, 77. 複體 複
合型, 78. 複體 複
合型, 79. 複體 複
合型, 80. 複體 複
合型, 81. 複體 複
合型, 82. 複體 複
合型, 83. 複體 複
合型, 84. 複體 複
合型, 85. 複體 複
合型, 86. 複體 複
合型, 87. 複體 複
合型, 88. 複體 複
合型, 89. 複體 複
合型, 90. 複體 複
合型, 91. 複體 複
合型, 92. 複體 複
合型, 93. 複體 複
合型, 94. 複體 複
合型, 95. 複體 複
合型, 96. 複體 複
合型, 97. 複體 複
合型, 98. 複體 複
合型, 99. 複體 複
合型, 100. 複體 複
合型, 101. 複體 複
合型, 102. 複體 複
合型, 103. 複體 複
合型, 104. 複體 複
合型, 105. 複體 複
合型, 106. 複體 複
合型, 107. 複體 複
合型, 108. 複體 複
合型, 109. 複體 複
合型, 110. 複體 複
合型, 111. 複體 複
合型, 112. 複體 複
合型, 113. 複體 複
合型, 114. 複體 複
合型, 115. 複體 複
合型, 116. 複體 複
合型, 117. 複體 複
合型, 118. 複體 複
合型, 119. 複體 複
合型, 120. 複體 複
合型, 121. 複體 複
合型, 122. 複體 複
合型, 123. 複體 複
合型, 124. 複體 複
合型, 125. 複體 複
合型, 126. 複體 複
合型, 127. 複體 複
合型, 128. 複體 複
合型, 129. 複體 複
合型, 130. 複體 複
合型, 131. 複體 複
合型, 132. 複體 複
合型, 133. 複體 複
合型, 134. 複體 複
合型, 135. 複體 複
合型, 136. 複體 複
合型, 137. 複體 複
合型, 138. 複體 複
合型, 139. 複體 複
合型, 140. 複體 複
合型, 141. 複體 複
合型, 142. 複體 複
合型, 143. 複體 複
合型, 144. 複體 複
合型, 145. 複體 複
合型, 146. 複體 複
合型, 147. 複體 複
合型, 148. 複體 複
合型, 149. 複體 複
合型, 150. 複體 複
合型, 151. 複體 複
合型, 152. 複體 複
合型, 153. 複體 複
合型, 154. 複體 複
合型, 155. 複體 複
合型, 156. 複體 複
合型, 157. 複體 複
合型, 158. 複體 複
合型, 159. 複體 複
合型, 160. 複體 複
合型, 161. 複體 複
合型, 162. 複體 複
合型, 163. 複體 複
合型, 164. 複體 複
合型, 165. 複體 複
合型, 166. 複體 複
合型, 167. 複體 複
合型, 168. 複體 複
合型, 169. 複體 複
合型, 170. 複體 複
合型, 171. 複體 複
合型, 172. 複體 複
合型, 173. 複體 複
合型, 174. 複體 複
合型, 175. 複體 複
合型, 176. 複體 複
合型, 177. 複體 複
合型, 178. 複體 複
合型, 179. 複體 複
合型, 180. 複體 複
合型, 181. 複體 複
合型, 182. 複體 複
合型, 183. 複體 複
合型, 184. 複體 複
合型, 185. 複體 複
合型, 186. 複體 複
合型, 187. 複體 複
合型, 188. 複體 複
合型, 189. 複體 複
合型, 190. 複體 複
合型, 191. 複體 複
合型, 192. 複體 複
合型, 193. 複體 複
合型, 194. 複體 複
合型, 195. 複體 複
合型, 196. 複體 複
合型, 197. 複體 複
合型, 198. 複體 複
合型, 199. 複體 複
合型, 200. 複體 複
合型, 201. 複體 複
合型, 202. 複體 複
合型, 203. 複體 複
合型, 204. 複體 複
合型, 205. 複體 複
合型, 206. 複體 複
合型, 207. 複體 複
合型, 208. 複體 複
合型, 209. 複體 複
合型, 210. 複體 複
合型, 211. 複體 複
合型, 212. 複體 複
合型, 213. 複體 複
合型, 214. 複體 複
合型, 215. 複體 複
合型, 216. 複體 複
合型, 217. 複體 複
合型, 218. 複體 複
合型, 219. 複體 複
合型, 220. 複體 複
合型, 221. 複體 複
合型, 222. 複體 複
合型, 223. 複體 複
合型, 224. 複體 複
合型, 225. 複體 複
合型, 226. 複體 複
合型, 227. 複體 複
合型, 228. 複體 複
合型, 229. 複體 複
合型, 230. 複體 複
合型, 231. 複體 複
合型, 232. 複體 複
合型, 233. 複體 複
合型, 234. 複體 複
合型, 235. 複體 複
合型, 236. 複體 複
合型, 237. 複體 複
合型, 238. 複體 複
合型, 239. 複體 複
合型, 240. 複體 複
合型, 241. 複體 複
合型, 242. 複體 複
合型, 243. 複體 複
合型, 244. 複體 複
合型, 245. 複體 複
合型, 246. 複體 複
合型, 247. 複體 複
合型, 248. 複體 複
合型, 249. 複體 複
合型, 250. 複體 複
合型, 251. 複體 複
合型, 252. 複體 複
合型, 253. 複體 複
合型, 254. 複體 複
合型, 255. 複體 複
合型, 256. 複體 複
合型, 257. 複體 複
合型, 258. 複體 複
合型, 259. 複體 複
合型, 260. 複體 複
合型, 261. 複體 複
合型, 262. 複體 複
合型, 263. 複體 複
合型, 264. 複體 複
合型, 265. 複體 複
合型, 266. 複體 複
合型, 267. 複體 複
合型, 268. 複體 複
合型, 269. 複體 複
合型, 270. 複體 複
合型, 271. 複體 複
合型, 272. 複體 複

신으로 그를 받들
사로 불복 개인 중시
주의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이러한 면에서 廠美제
품의 스피크와는 理想
적인 재상인 理想 추구하
는 과정으로서 부지불식
간에 그것을 설계하는
한 장안자의 개성이 基礎
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스
에 대한 마르크스 역설적
개념은 그의 다른 사상을
기반으로 한 통일론과

생각한다. 영미의 문학은 작자의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학은 작자의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영미의 문학은 작자의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학은 작자의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오해를 사기에 별려 회
맥킨지이다. 마
크레비츠는 엘리트 J.B.L.
한도의 스피커나
최고의 명품들만
화재들 이
나간다. 그러나 진
오디오를 통한 음
자신의 것들
만족하고 심리적인
느끼면 그것의
자신이 참된
장이다. 환경은
크레비츠 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다. 이 책은 그 길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1.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문화산업'의 부상
 2.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문화산업'의 성장
 3.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문화산업'의 발전
 4.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문화산업'의 성숙
 5.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문화산업'의 다양화
 6.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문화산업'의 글로벌화
 7.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문화산업'의 융합화
 8.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문화산업'의 디지털화
 9.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문화산업'의 대중화
 10. 202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화

[illegible][illegible]

100

新刊

■공산권붕괴와 독일의 통일

-徐丙喆 著 (63년 文理大卒·외무부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장)

이념의 시대가 끝나고 바야흐로 세계는 타협과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요즈음 공산주의는 2차대전후 반세기에 걸

인사회로 되돌아와 우리끼리치고 받게되는데, 여기에도 백인들은 여러모로 출중한 한국계등 소수민족을 더욱 경계, 멸시하고 있는데... 20여년간의 언론생활을 통해 얻어진 저자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때론 눈물겹게, 때론 애증의 회한으로 풀어낸 간 아메리카통신. <큰산刊·239쪽·3천5백원>

■法속에서 詩속에서

-崔鍾庫 詩集 (70년 法大卒·모교敎授)



쳐 인류의 운명을 좌우한적이 「있었던」 하나의 정치사상으로 소개될 정도로 후퇴했음을 전제로 1장에서는 공산이념으로 철통같이 무장되어 요지부동하던 현실사회주의가 붕괴되는 모습을, 2장에서는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합되는 과정과 원인및 통일후 독일의 위상을 논급함으로써 최근의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계축문화사刊·383쪽·6천원>

■책시 얻어줄게 서울가자마

-朴煥鍾 著 (65년 商大卒·국회의원·本會이사)

부제로 단「박찬종 삼, 꿈, 해학」이 설명하듯 걱정, 세태조류를 우려하는 한탄과 잘못된 삶아온 부끄러움의 고백을 특유의 문체로 진솔하게 그리고 있다. 소전대통령과의 첫인연을 비롯, 목욕탕에서 만난 盧大統領, 국회청문회·정계의 비화 그리고 젊은날의 일화와 이른바 고시 3관왕이 공개하는 공부 잘하는 비결등이 실려있다. <성전출판사刊·293쪽·4천원>

■박수철 때 떠나라

-林承快 著 (70년 文理大卒·한국일보샌프란시스코지사 편집국장·本會지부회장)

두개의 생활권과 문화에 속해있되 어느 한쪽에도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주변인」으로서의 移民들을 위 응답없는 미국사회. 그러다보니 결국 좁은 韓

수많은 법학연구서를 낸 법학자로 잘 알려진 저자가 법의 논리와 시의 감정 사이에서 생겨나는 갈등, 법학자로서의 실존의식, 지식인으로서의 사색과 고민을 다듬어 엮어낸 이색詩集. 전편을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인간에 대한 사랑과 삶의 경건함을 향한 윤리의식이 종교적 신앙인양 질게 배어난다. 저자 스스로 法文化를 가꾸어 나가는데 조그마한 초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

음에서 「법학교양총서」에 넣어낸다고 밝힌다. <교육과학사刊·238쪽·3천원>

■세계를 맡겨도 자신을 가저라

-金正寶 著 (71년 法大卒·한국산업은행 공보실장)

세계가 역사상 전례없는 고도의 신산업혁명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이후 나태와 무기력 속에서 전반적인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우리사회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혁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경영에세이. 아울러 범지구적인 경쟁적 창조 의 시대를 맞아 국민 모두가 창조적인 사고를 일상화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의 지평이 열린다고 일깨우고 있다. <자유지성사刊·304쪽·4천원>

■기업의 연금술 M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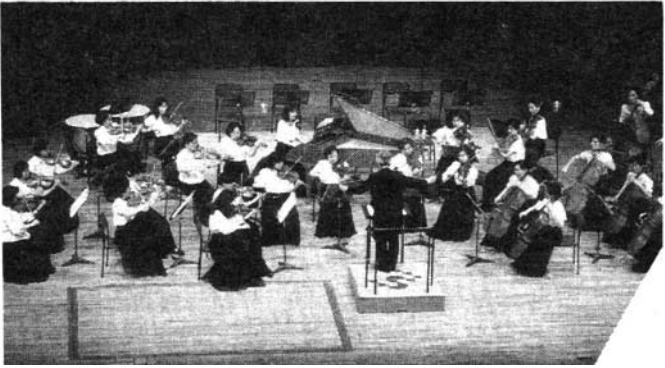
-葛政雄 譯 (72년 商大卒·시인·대림산업이사) 片岡一九著

주로 기업구제를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져온 M & A (기업의 흡수·합병)가 사뭇 전략적으로 그 내용과 방향이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국제경쟁에 있어 유리한 위치 점유를 위한 중요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유럽·일본의 M & A현상을 이해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다 유용한 전략을 세우는데 실용적인 지침서로 삼고자한 책. 기업경영자나 관리자들이 자본자유화의 물결에 대응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UCG刊·266쪽·6천원>

公演

■마드리실내악단 송년음악회

- 12월 1일 예술의전당
국내 실내악계에서 중후한 위



치를 점하고 있는 이들의 이번 공연은 한해를 마무리짓는 시점에서 각별한 비중을 두고 있다. 朴敏鍾 前모교음대학장(단장)의 지휘로 메조소프라노金英愛(68년 音大卒·경원대교수)·테너 朴世源(72년 音大

◇마드리 실내악단

卒·모교음대교수)·李順子(70년 音大卒·첼로) 동문등이 출연, 모짜르트를 비롯해 비발디·푸치니·가스타르도·베르디·하이든을 연주한다.

■曹祥欽독창회

- 12월 6일 예술의전당
국내 성악계의 원로로서 서 울유치클럽등을 이끌고 있는 바리톤 조상현(48년 音大卒) 동문의 모짜르트 2백주기 기념독창회. 이번 공연은 그의 말처럼 「아직까지 한번도 불러보지 못한 모짜르트의 곡이지만



◇조상현(바리톤)

한 성악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정성」으로 마련된것. K 476 제비꽃등 가곡과 마술피리·돈조바니·취가로의 결혼등 아리아로 꾸며졌다. 피아노는 俞愛영방양이, 오케스트라 지휘는 林憲政(76년 音大卒) 동문이 각각 맡았다.

■李英順독창회

- 12월 5일 세종소강당
모교 졸업(66년)후 美미네 소타대학원서 MFA를 취득한 소프라노 이영순동문은 유럽에서의 연수와 수차례의 독창회를 통해 탁월한 성량을 인정



◇이영순(소프라노)

받고 있다. 현재 영남대교수로 재직중. 슈베르트의 「엘렌의 노래」·말러의 「회상」·원버그의 「기다림」·브람스의 「노래의 꼭조처럼」등이 연주된다. 피아노는 劉恩淑(77년 音大卒·영남대교수) 동문.

■모짜르트 피아노 이중주 전국연주

- 12월 28·30일 예술홀
중견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申秀貞(63년 音大卒·경원대교수) 동문과 이경숙 연세대교수 두 피아니스트가 마련한 모짜르트 피아노이

중주 완주부대. 28·30일 이틀에 걸쳐 「네손을 위한 피아노곡」 전 8곡이 연주된다. 한해동안 풍성했던 「모짜르트 음악의 해」를 두 중진 피아니스트의 화려한 연주로 마무리 짓는다.

■金炳燁비순독주회

- 12월 5일 예술의전당
김병열은 모교音大 졸업(83년)후 독일뮌헨 국립음대에서 첼버뮤직 디플롬을 취득했다. 모교 재학중 동아콩쿨1위를 비롯, 졸업후에는 수원시향등에서 수석주자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간 코리아심포니수석을 거쳐 현재 연세대등에 출강중인 金동문의 이번 연주회에서는 M·Corrette E.W Ferrari F.Devienne Bernhard Crusell 등 중세음악을 중심으로 올려진다.

展示

■朴南哲(82년 美大卒)

그의 작품이 주는 눈의 즐거움은 童話스러운 옛이야기꺼리를 聯想시키는 소박하고 순수한 여러 형상들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흥미와 관심은 그의 작품이 극히 東洋의이고 나아가서는 土俗의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모아진다. 그러기에 그의 그림에는 여러 記號의인 흔적이 마치 장식문양처럼 많이 담겨져 있지만, 그것은 원초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알려주는 것들이다.



每天 98X53.5cm Mixed Media 1991

學科別 지원상황

| 학 과 | 모집인원 | 지원자수 | 경쟁률 | 학 과 | 모집인원 | 지원자수 | 경쟁률 |
|----------|-------|-----------|--------|------------|------|------|------|
| 국문영문학 | 35 | 86 | 2.46 | 농산동물농식물생물학 | 35 | 40 | 1.14 |
| 노서인국문학 | 20 | 43 | 2.15 | 림업 | 40 | 53 | 1.33 |
| 고철종미경외국사 | 35 | 91 | 2.6 | 자자토기화병민속 | 50 | 79 | 1.58 |
| 고철종미경외국사 | 30 | 62 | 2.07 | 농산동물농식물생물학 | 33 | 68 | 2.06 |
| 고철종미경외국사 | 30 | 67 | 2.23 | 림업 | 32 | 78 | 2.44 |
| 고철종미경외국사 | 20 | 45 | 2.25 | 자자토기화병민속 | 40 | 56 | 1.4 |
| 고철종미경외국사 | 20 | 38 | 1.9 | 농산동물농식물생물학 | 25 | 42 | 1.68 |
| 고철종미경외국사 | 20 | 35 | 1.75 | 림업 | 25 | 36 | 1.44 |
| 고철종미경외국사 | 30 | 59 | 1.97 | 자자토기화병민속 | 25 | 33 | 1.32 |
| 고철종미경외국사 | 20 | 46 | 2.3 | 농산동물농식물생물학 | 35 | 63 | 1.8 |
| 고철종미경외국사 | 20 | 41 | 2.05 | 림업 | 30 | 44 | 1.47 |
| 고철종미경외국사 | 20 | 35 | 1.75 | 자자토기화병민속 | 40 | 59 | 1.48 |
| 고철종미경외국사 | 30 | 63 | 2.1 | 농산동물농식물생물학 | 35 | 54 | 1.54 |
| 고철종미경외국사 | 20 | 63 | 3.15 | 림업 | 30 | 46 | 1.53 |
| 고철종미경외국사 | 20 | 47 | 2.35 | 자자토기화병민속 | 30 | 59 | 1.97 |
| 고철종미경외국사 | 38 | 161 | 4.24 | 농산동물농식물생물학 | 30 | 55 | 1.83 |
| 고철종미경외국사 | 38 | 105 | 2.76 | 림업 | 40 | 99 | 2.48 |
| 고철종미경외국사 | 141 | 345 | 2.45 | 자자토기화병민속 | 10 | 25 | 2.5 |
| 고철종미경외국사 | 75 | 210 | 2.8 | 농산동물농식물생물학 | 9 | 19 | 2.1 |
| 고철종미경외국사 | 38 | 89 | 2.34 | 림업 | 13 | 57 | 4.38 |
| 고철종미경외국사 | 28 | 52 | 1.86 | 자자토기화병민속 | 13 | 43 | 3.31 |
| 고철종미경외국사 | 33 | 77 | 2.33 | 농산동물농식물생물학 | 13 | 39 | 3.0 |
| 고철종미경외국사 | 33 | 73 | 2.21 | 림업 | 12 | 34 | 2.83 |
| 고철종미경외국사 | 28 | 72 | 2.57 | 자자토기화병민속 | 10 | 32 | 3.2 |
| 고철종미경외국사 | 28 | 70 | 2.5 | 농산동물농식물생물학 | 9 | 33 | 3.67 |
| 고철종미경외국사 | 50 | 97 | 1.94 | 림업 | 18 | 76 | 4.2 |
| 고철종미경외국사 | 25 | 61 | 2.44 | 자자토기화병민속 | 18 | 48 | 2.67 |
| 고철종미경외국사 | 25 | 48 | 1.92 | 농산동물농식물생물학 | 270 | 1183 | 4.38 |
| 고철종미경외국사 | 60 | 118 | 1.97 | 림업 | 20 | 45 | 2.25 |
| 고철종미경외국사 | 15 | 27 | 1.8 | 자자토기화병민속 | 35 | 82 | 2.34 |
| 고철종미경외국사 | 70 | 109 | 1.56 | 농산동물농식물생물학 | 35 | 90 | 2.57 |
| 고철종미경외국사 | 20 | 46 | 2.3 | 림업 | 15 | 35 | 2.33 |
| 고철종미경외국사 | 20 | 55 | 2.75 | 자자토기화병민속 | 15 | 48 | 3.2 |
| 고철종미경외국사 | 25 | 49 | 1.96 | 농산동물농식물생물학 | 25 | 70 | 2.8 |
| 고철종미경외국사 | 15 | 44 | 2.93 | 림업 | 25 | 40 | 1.6 |
| 고철종미경외국사 | 25 | 52 | 2.08 | 자자토기화병민속 | 25 | 46 | 1.84 |
| 고철종미경외국사 | 25 | 41 | 1.64 | 농산동물농식물생물학 | 30 | 69 | 2.3 |
| 고철종미경외국사 | 190 | 545 | 2.87 | 림업 | 35 | 61 | 1.74 |
| 고철종미경외국사 | 100 | 280 | 2.8 | 자자토기화병민속 | 30 | 67 | 2.23 |
| 고철종미경외국사 | 40 | 104 | 2.6 | 농산동물농식물생물학 | 30 | 79 | 2.63 |
| 고철종미경외국사 | 40 | 56 | 1.4 | 림업 | 30 | 54 | 1.8 |
| 고철종미경외국사 | 40 | 51 | 1.28 | 자자토기화병민속 | 30 | 67 | 2.23 |
| 고철종미경외국사 | 235 | 622 | 2.65 | 농산동물농식물생물학 | 49 | 138 | 2.82 |
| 고철종미경외국사 | 50 | 134 | 2.68 | 림업 | 6 | 13 | 2.17 |
| 고철종미경외국사 | 55 | 99 | 1.8 | 자자토기화병민속 | 60 | 122 | 2.03 |
| 고철종미경외국사 | 50 | 103 | 2.06 | 농산동물농식물생물학 | 40 | 67 | 1.68 |
| 고철종미경외국사 | 80 | 161 | 2.01 | 림업 | 40 | 72 | 1.8 |
| 고철종미경외국사 | 80 | 178 | 2.23 | 자자토기화병민속 | 17 | 92 | 5.41 |
| 고철종미경외국사 | 45 | 98 | 2.18 | 농산동물농식물생물학 | 17 | 53 | 3.12 |
| 고철종미경외국사 | 40 | 81 | 2.03 | 림업 | 15 | 35 | 2.33 |
| 고철종미경외국사 | 45 | 122 | 2.71 | 자자토기화병민속 | 10 | 30 | 3.0 |
| 고철종미경외국사 | 50 | 110 | 2.2 | 농산동물농식물생물학 | 34 | 61 | 1.79 |
| 고철종미경외국사 | 45 | 129 | 2.87 | 림업 | 34 | 70 | 2.06 |
| 고철종미경외국사 | 45 | 67 | 2.68 | 자자토기화병민속 | 19 | 64 | 3.37 |
| 고철종미경외국사 | 45 | 88 | 1.96 | 농산동물농식물생물학 | 20 | 39 | 1.95 |
| 고철종미경외국사 | 65 | 129 | 1.98 | 림업 | 9 | 9 | 2.25 |
| 고철종미경외국사 | 60 | 115 | 1.92 | 자자토기화병민속 | 4 | 3 | 3.0 |
| 고철종미경외국사 | 35 | 70 | 2.0 | 농산동물농식물생물학 | 2 | 2 | 1.0 |
| 고철종미경외국사 | 35 | 63 | 1.8 | 림업 | 75 | 76 | 1.01 |
| 고철종미경외국사 | 215 | 429 | 2.0 | 자자토기화병민속 | | | |
| 모 집 정 원 | 4,685 | 지 원 자 총 원 | 11,014 | 경쟁률 | 2.35 | | |

入試경쟁률 2·35대1



◇ 불바는 접수창구(25일 오후 3시)

지난해 2·41대1보다 약간 낮아

音大聲樂科 5·41대1로 最高

92학년도 모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시원서 접수가 지난 11월 25일 오후 5시를 기해 마감됨

전 6백85명 모집에 1만 1천14명이 지원, 2·3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의 2·41대1보다 다소 낮아졌다.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이처럼 낮아진 것은 전년도인 1990년 이래 처음이다. 특히 음악대학의 경우 경쟁률이 5·41대1로 가장 높았다.

올해 처음 유서화과를 신설한 전기·전자·제어공학과는 2대1, 컴퓨터학과는 1·92대1, 물리학과는 1·97대1, 기체·플라즈마·응집물질학과는 1·97대1, 화학과와 비교해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

에 영향을 미친다.

모교 發展基金

錦湖서 3천만원 선뜻
동방상호신용금고 2천만원
光州高速 1천만원

단체 출연도 계속 이어져

모교 발전기금에 계속 답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업에서 錦湖가 3천만원을 출연한 것을 비롯하여

한편, 전년도에 계속 이어져 고 있는데 한국통신공사 재직동원(전 8월 77명)이 참여한 이후 지난 10월 31일 다시 2차로 37명이 53만원을 출연하여

物理科學研究會

초대소장張浚成교수

자연과학대학 부설로 설립된 물리과학연구소가 지난 11월 12일 오후 3시부터 연대 교수회의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초대소장은 장준하교수가 취임했다.

한드볼優勝

大學別 연맹에서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한국체대체육관에서 열린 제19회 체육청 소년부장경기 대회별 연맹에서 모교 한드볼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母校 소식

「研究所」발간
組織·機能 등 수록
「서울대학교 연구소요람 1991」이 연구처에서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이번 발간된 요람에

15개의 모교부속별 연구소, 6개의 비별정 연구소, 3개의 대학원 연구소, 3개의 대학원 부속 별정연구소, 5개의 비별정연구소, 10개의 과학·공학연구소, 3개의 지원기관의 설치목적, 연구 내용, 조직과 기능 등이 소개되어 있다.

올해에도 4·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법학과는 역시 수천명원 파가 돌며 작년보다 높았다. 4·38대1을 기록한 정지학과는 4·2대1, 의학과는 2·7대1, 종교학과는 3·1대1, 경영학과는 2·6대1, 의예과 2·87대1, 치의예과 1·88대1, 서양학과(단) 4·3대1, 공예과(단) 3·6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12월 17일 실시된 화학공학과 관련해 모교가 발간한 신입생모집요강에 의하면 수험표 교부는 시험전날인 16일(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1차 대학에서 이루어지며, 간혹 화과는 자연과학대학에서, 면접고사 및 교정정신검사는 18일(수), 예술및 체육계열의 실기고사는 12월 19일부터 23일 사이의 실시된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30일 오전 10시 이전